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44th

#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20학년도 6월 평가원 43~45 풀이시간 :  
 풀이 전 이해도 :           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  
 낙엽은 폴-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
 포화(砲火)에 이즈러진  
 도룬 시(市)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 
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
 일광(日光)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
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
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 
 포플라 나무의 근골(筋骨) 사이로  
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 
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 
 그 위에 세로광지(紙)로 만든 구름이 하나  
 자욱-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
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
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
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 
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
 - 김광균, 「추일서정」 -

(나)  
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**업혀** 허공에서  
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 
  
 새가 푸른 하늘에 **놀려** 납작하게 날고 있다  
  
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**버리며**  
 빈자리를 만들고  
  
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 
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**엎힌다**  
  
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**들어올려**  
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
 - 오규원, 「하늘과 돌멩이」 -

43.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.
  -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.
  -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
  -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.
  -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.

44. 다음은 (나)에 대한 <학습 활동> 과제이다.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〈학습 활동〉

「하늘과 돌멩이」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.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,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.

	사물	사물에 대한 고정관념	서술어	새로운 관점
1연	담쟁이덩굴	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.	업혀	㉠
2연	새	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.	놀려	㉡
3연	들쭉레	들쭉레의 꽃이 떨어진다.	버리며	㉢
4연	하늘	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.	엎힌다	㉣
5연	모래	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.	들어올려	㉤

- ① ㉠ : ‘업혀’에 주목하면,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.
- ② ㉡ : ‘놀려’에 주목하면,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③ ㉢ : ‘버리며’에 주목하면,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④ ㉣ : ‘엎힌다’에 주목하면,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.
- ⑤ ㉤ : ‘들어올려’에 주목하면,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.

45.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‘낙엽’을 ‘망명정부의 지폐’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.
- ② (가)는 ‘돌팔매’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‘고독한 반원’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.
- ③ (나)는 ‘빈자리’를 ‘들쭉레’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.
- ④ (가)는 ‘길’을 ‘구겨진 넥타이’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, (나)는 ‘길 밖’과 ‘길 한켠’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.
- ⑤ (가)는 ‘허공’을 ‘황량한 생각’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, (나)는 ‘담쟁이덩굴’의 움직임에 활용하여 ‘허공’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.